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책 머리에

고요한 수면 위에서 살포시 문을 연 연꽃을 보셨습니까?
티 한 점 없이 청정한 연꽃의 자태는 보는 이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해줍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이 운동은 수면이 아닌 우리들 마음속에 한 송이 연꽃을,
우리 함께 피워 내보자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가기만 하는 오늘의 현실들을
연못 속의 더러운 진흙 삼아 우리 자신이 연꽃으로 피어난다면
이 세상은 이내 맑고 향기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발족 취지에 따라 욕심냄이 없이
회원님께서 후원해주시는 만큼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 월간「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저서 중에서
스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과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곁에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 알 수 있는 글을 가려 뽑아
한 해 동안 주제별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손 가까이 두시고 늘 읽음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권하셔서
우리 모두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1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무소유의 삶

산방한담	04	텅빈 충만
일기일회	09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
무소유의 삶	15	간소하게 더 간소하게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23	가사와 바리때로 살아갈 만한데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24	얼음선사 일갈
법정 스님의 숨결	28	비어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31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법정 마음의 온도	33	무소유의 참의미
특별기고	35	미얀마에서 무소유와 맑고 향기로움을 배우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99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텅 빈 충만

글 • 법 정(法 頂)

오늘 오후 큰절에 우편물을 챙기러 내려갔다가 한 스님이 거처하는 다향산방茶香山房에 들렀었다. 내가 이 방에 가끔 들르는 것은, 방주인의 깔끔하고 정갈한 성품과 아무 장식도 없는 빈 벽과 텅 빈 방이 좋아서다.

이 방에는 어떤 방에나 걸려 있음직한 달력도 없고 휴지통도 없으며, 책상도 없이 한 장의 방석이 화로 곁에 놓여 있을 뿐이다. 방 한쪽 구석에는 항시 화병에 한두 송이의 꽃이 조촐하게 꽂혀 있고, 꽃이 없을 때는 까치밥 같은 빨간 나무 열매가 까맣게 칠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곤 했었다.

물론 방 이름이 다향산방이므로 차가 있고 차 도구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들 또한 눈에 띄지 않는 벽장 속에 갈무리되어 있다.

이 방 주인이 하는 일은 관음전觀音殿에서 하루 네 차례씩 올리는 사중寺中기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소임이다. 이런 힘든 소임을 1천 일 동안 한 차례 무난히 마쳤고, 작년부터 두 번째 다시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기도 중에는 산문 밖 출입을 일절 금하는 질서를 스스로 굳게 지키고 있다.

송광사에서 5, 6년에 걸쳐 도량을 일신하는 중창불사를 별다른 어려움과 장애 없이 원만히 진행하게 된 것도, 그 이면에는 이 방 주인과 같은 청정한 스님의 기도의 공이 크게 뒷받침되었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이변이 생겼다. 방 안에 화로도 꽃병도 출입문 위에 걸려 있던 이 방의 편액도 보이지 않았다. 빈방에 덩그러니 방석 한 장과 조그마한 탁상시계가 한쪽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웬일인가 싶어 방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고 싶은 그런 심경임을 말 없는 가운데서도 능히 읽을 수 있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지만, 중의 사정은 중이 훤히 안다. 너절한데서 훨훨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속을 모르는 남들은 갑작스런 변화를 보고 이 무슨 변덕인가 할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안일한 일상과 타성의 늪에서 뛰쳐나와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그의 소망은, 부모 형제를 떨쳐버리고 집을 나올 때의 그 출가 정신에 이어진다. 출가란 살던 집을 등지고 나온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이요, 거듭거듭 떨치고 일어남이다.

그런 출가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칼을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칼날이 무뎌지면 칼로서의 기능은 끝난다. 칼이 칼일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퍼렇게 서 있을 때 한해서다. 누구를 상하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버릇과 타성과 번뇌를 가차 없이 절단하는 반야검般若劍, 즉 지혜의 칼날이다.

서슬 푸른 그 칼날을 지니지 않으면, 타인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다향

산방의 주인은 나보다는 너그러운 편이다. 나 같으면 편액을 걸어두었던 그 못까지도 빼버리고 그 자국마저 종이로 바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자리에 편액을 거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마음이 내켰을 때는 철저하게 치우고 없애야 한다.

그때 그 심경으로 치우고 없애는 그 일이 바로 그날의 삶이다. 작심삼일. 이런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의 그 결단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런 비장한 결단 없이는 일상적인 타성과 잘못 길들여진 수렁에서 헤어날 기약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 층 한 층 쌓아갈 뿐이다.

선종사禪宗史에 방 거사龐居士라는 특이한 선자禪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살다 간 재가신자在家信者인데, 마조(중국의 위대한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어록語錄이 전해질 만큼 뛰어난 삶을 살았다.

그는 원래 엄청난 재산을 지닌 소문난 부호였다.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랬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 미련 없이 버린다. 어떤 문헌에는 바다가 아니고 동정호洞庭湖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전 재산을 바다에 버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자신에게 '원수'가 된 재산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단행한다.

살던 저택을 버리고 조그만 오막살이로 옮겨 앉는다. 대조리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으면서 딸과 함께 평생 동안 수도 생활을 한다.

있던 재산 다 버리고 궁상맞게 대조리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 가는 그의 행동을, 세상에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진짜로 전개된다. 그의 어록에는 이런 게송이 실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 드러난다.

또 다음과 같이 읊기도 했다.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요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계持戒요
잡념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모두가 함께 반야선般若船을 탄다.

며칠 전 여수 오동도로 동백꽃을 보러 갔다가 현정이네 집에 들렀다. 거실에 있는 오디오 장치를 볼 때마다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오디오는 애초 현정이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우리 방에 설치해준 것인데, 한 일 년쯤 듣다가 예의 그 '변덕'이 일어나 되돌려준 것이다. 인편에 들려오기를, 처음 이 오디오를 우리 방에 설치해주고 나서는 그렇게 흐뭇해하고 좋아했는데, 되돌아오자 몹시 서운해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 오디오 말고도 산에 살면서 두 차례나 치워 없앤 적이 있다. 음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더미가, 소유의 더미가 싫어서였다. 치워버릴 때는 애써 모았던 음반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린다.

일단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

면, 그때부터 맨 먼저 찾아오는 사람한테(물론 그가 낯선 사람이 아닐 경우) 그날로 가져가라고 큰절 일꾼을 시켜 지워서 내려 보낸다. 그가 음악을 이해하건 안 하건 그건 내게 상관이 없다. 그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주어버리는 것으로써 내 일은 끝난다.

한동안 음악을 듣지 않으면 내 감성에 물기가 없고 녹이 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때부터 하나 또 들여놔볼까 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밖에 나가 알아본다. 될 수 있으면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서도 산방의 분수에 넘치지 않는 것으로 고른다. 다시 필요해서 들여놓을 때라도 그전에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홀가분한 것으로써 내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손수 사들인 것은 선뜻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지만, 큰맘 먹고 선물해준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오디오를 설치할 때 나는 1년만 듣고 보내겠다고 미리 이야기해두었었다.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흐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빈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 1989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

글 • 법 정(法 頂)

설 잘 쇠셨습니까? 복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하고 싶은 인사도 많을 텐데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복을 받으라는 간절한 소망 자체가 좋습니다. 복은 인간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이 부처가 된 것은 복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전에서 했습니다. "복의 힘으로써 나는 부처가 되었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선을 통해 한 소식 하면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에너지는 매 순간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 자체가 복을 짓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일이 복을 감하고 복을 덜어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 사는 삶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런 결산을 하십시오. 9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 전에 내가 하루 동안 복을 짓고 살았는지 복을 덜고 살았는지 스스로 자기 삶

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란 인사는 바꿔 말하면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아침 먹고 오셨지요? 빵을 드셨든 밥을 드셨든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계된 밥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나 상추, 무 등의 종자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 씨앗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 칠레산 종자입니다. 작년 가을, 시장에 씨앗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것을 만드느라 다른 데엔 신경 쓸 틈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화란 이런 것입니다. 온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차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또 차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진 휘발유나 경유를 주요소에서 넣어야 합니다. 또 절에 오는데 맨발로 올 수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오는데, 이 신발은 누가 만듭니까?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내 한 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많은 인연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내 한 몸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살면, 그 잘사는 기운이 온 우주에 긍정적으로 펴져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그 사람을 위해 온 우주가 거들고 있는데, 나쁜 기운을 퍼트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독립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안거 동안 생긴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두려웠던 일은 잘 아시다시피 쓰나미입니다. 이제껏 해일이나 지진 소식을 들은 적은 있지만, 한순간에 22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재난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무엇인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런 화두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는가가 모든 인류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재난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한 아메리카 인디언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물질적인 추구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곧 탐욕의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모두가 물질 추구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보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갈증 상태입니다. 물속에 있으면서도 목말라 하는 격입니다. 인간이 물질적인 추구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인디언 지도자의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 자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웃의 사정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

면 나 자신도 아픕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도 따라서 기쁩니다. 이것이 메아리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지구의 자식들입니다. 그 인디언 영적 지도자는 이와 같이 충고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다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과 정신적인 추구에 있다."

진리는 이토록 간단명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덜 쓰고, 덜 버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끔찍한 재난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지구는 단순한 흙이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인간은 그 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르는 천둥'이라는 인디언 영적 지도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들이 대지를 잘못 대해 왔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다. 대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이것은 벌써 수십 년 전, 1950년대에 한 말입니다. 대지를 못살게 하는 물것(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들을 털어 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물것들이 있으면 이내 털어 내듯이,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물것들이 하도 못되게 하니까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 크게 뒤흔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가르침의 근본도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입니다. '연기법'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홀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상호 간에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상호의존관계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데 온 지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지으면서 산다면 그 협력은 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덜면서 잘못 산다면 온 지구의 힘이 소멸할 것입니다.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살고 못 사는 것, 수입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겨울안거 해제일입니다. 해제란 맺은 것을 푼다는 뜻입니다. 또한 맺힌 것을 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홀가분해집니다. 얽힘에서 벗어나려면 맺음과 맺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은해를 청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은 업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방에 다니며 매우 착실하게 정진하는 한 수행자가 화두 대신 수년 전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맺힌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는

더 물을 것도 없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어떤 어두운 구석을 지니고 있거나, 남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한 생각을 지니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복 받은 삶이 아닙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결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늪에 갇혀 헤어날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순간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나가 버린 전생사 가지고 다시 되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지고, 현재와 미래가 소멸됩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오늘 푸는 날을 맞이해서 모두 풀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꽃 피고 새 우는 화창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2월 23일 겨울안거 해제

쓰나미는 해저에서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생기는 파장이 긴 해일을 말한다. 동안거 결제 기간 중인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해안 일대를 덮친 쓰나미로 남아시아에서 22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1,500여 명의 청중이 극락전과 설법전을 가득 매운 가운데 이날 열린 법회에서 스님은 "복 짓는 삶을 살자."고 강조하면서, 복 짓는 일은 사람 사이뿐 아니라 모든 생명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오늘날 우리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스님은 장기적 대안으로 '덜 쓰고, 덜 버리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제시했다.

간소하게 더 간소하게

글 • 법 정(法 頂)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연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볼 교훈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물질의 홍수에 떠밀리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절간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물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낄 줄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옛날 같으면 좀 깁거나, 때우거나 고치면 말짱할 물건도 아낌없이 내다버린다.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고 소중하게 아는 그 정신까지도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다.

*

적게 가질수록 마음이 덜 흩어진다. 그리고 적게 가질수록 귀하고 소중한

줄을 알게 된다. 귀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알맹이 없는 빈 꺼풀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람의 욕망이란 한이 없다. 분수 밖의 욕망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물질만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지위도 분수를 지나치면 자기 스스로가 불편하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마련이다.

*

경전의 말씀처럼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 보기에 가난한듯하지만 실상은 어디에도 걸릴 게 없는 부유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적은 것으로 넉넉할 줄 알고 뭣보다도 살 줄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천진스런 모습대로 마음 편히 홀가분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답게 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다. 그들은 절제의 미덕을 알고 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조촐하게 누리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삶도 하나의 기술이다.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보다 값있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빈껍데기로 처질 것이다.

*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부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부는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차지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안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채운다. 그리고 그 그릇에 차면 넘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

성에 차지 않는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우선해야 할 일은 소유와 관계를 정리 정돈하는 작업이다. 때때로 이 소유와 관계에 대한 반성과 정리 정돈이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소유와 관계의 곁가지들에 얽히고설켜 본질적인 삶을 이루기 어렵다.

나무들이 가을이면 지녔던 잎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만이 아닐 듯싶다. 새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묵은 것에 결별하는 소식일 수도 있다. 묵은 것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새것은 돋아나지 않는다.

*

우리가 보다 간소하고 단순한 본질적인 삶을 이루려면 안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살피고 들여다보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소비 현상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진 이 시점에서, 단순하고 간소한 삶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봄직도 하다. 우리는 언젠가 낙엽처럼 나뒹굴 그런 존재 아닌가.

*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생존적 소유'는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분수 밖의 지나친 소비나 불필요한 소유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멍들게 한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허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소외되고 겉돌게 된다.

돈이나 물건은 혼자서 찾아오는 법이 없다. 돈과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탐욕이라는 친구가 함께 따라온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

차지하는 것과 쓸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쓸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른다면 그는 살 줄도 모른다. 그저 하나라도 남보다 더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오늘의 우리들은 탐욕의 노예인지도 모르겠다.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인간의 생활을 위한 경제가 인간을 도외시한 채 거대한 쪽으로만 치닫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 부흥의 경제'를 내세우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소비가 미덕이라고 떠벌리는 오늘의 우리는 곰곰이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인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 것이다.

*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얽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

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의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回心의 작업은 정신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 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서 살면 된다.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부자유해지며 타인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인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갈 우리 처지가 아닌가. 누가 소비를 미덕이라 했는가. 지나친 소비는 악덕임을 명심하라.

*

질보다는 양을 내세우는 오늘 이 땅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텅 비워야 메아리가 울리고 새것이 들어찰 수 있다. 온갖 집착과 굳어진 관념에서 벗어난 텅 빈 마음이 우리들을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행동, 사상이나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일단 어디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청정한 심성은 흐려져 가치의식이 전도되고 존재의 활기도 빛을 잃는다.

오늘날 우리들은 보다 많이 보다 크게 차지하여 부자만 되려고 하지, 가난을 지키면서 즐기려고는 하지 않는다.

알맞게 가난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같은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기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적당한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내적인 가난만이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번뇌와 갈등이 비교적 적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

청빈淸貧과 빈곤貧困은 가난을 동반하면서도 그 뜻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쪽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고, 다른 한쪽은 결핍에서 온 주어진 가난이다.

오늘처럼 모든 것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지만, 투철한 삶의 질서를 지니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물론 누구나 부자가 될 수도 없듯이, 아무나 가난하게 살 수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냐 아니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

우리가 무엇엔가 너무 집착을 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도 말한 바 있다.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악덕이며,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과 덕은 검소한 데서 온다. 복과 덕은 새로 쌓지 않으면 자꾸 졸아든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익히 체험하고 있듯이,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의 소중함마저 잃게 된다. 가수요란 허욕에서 싹튼다. 모자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 아니겠는가.

가사와 바리때로 살아갈 만한데

글 • 야운선사

어째서 괴로운 삼악도가 생겼는가

오랜 세월 익혀온 탐욕 탓이다

가사와 바리때로 살아갈 만한데

무엇 하러 쌓고 모아 무명 기르나

• 발췌 : 「물소리 바람소리」 불사에는 함정이 있다.

얼음선사 일갈

글 • 고 현

서울에 일이 있어 상경을 준비하던 차에 갑자기 스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일을 끝내고 약속한 시간에 송광사 서울 말사인 법련사에 들러서야 송광사 회보 편집디자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일암도, 내 화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뵙기는 처음이었다.

스님은 이미 낯선 불자 세 사람과 만나고 계셨다. 들어오라 해 서 방으로 들어갔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스님은 세 사람의 면상을 번갈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표정이 굳어져 계셨다.

"종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큰 스님께서 꼭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차나 드시오."

"큰 스님, 결심만 굳혀주시면 뒷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서 차나 드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팽팽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큰 스님! 큰 스님 정도의 영향력이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몇몇 스님들은 결코 합당한 인물 들이 아니기에 염려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종단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었으나 스님의 유명세만 염두에 두고 권력승이 되라고 총무원장 출마를 권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의 성품이나 빛깔을 너무도 모르는 이들이 어쩐지 불안 불안 했다.

"쓸데없는 말씀 그만하시고 차나 듭시다."

"큰 스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이런 기회 두 번 안 옵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생각하고 여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큰 스님!"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나는 전생에 총무원장뿐만 아니라 종정까지 다 해먹은 중인데 이생에 와서 뭘 또 하란 말이오?"

"그리고 거 자꾸 큰 스님, 큰 스님 하시는데 내가 키가 커서 큰 스님이오? 목소리가 커서 큰 스님이오?"

처사들은 갑자기 기습을 당하자 한순간 말문이 막혀 어리둥절해하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른 무기를 들고 다시 반격에 나섰다. 한 처사가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다.

"스님! 정 싫으시다면 좋습니다. 총무원장 출마가 부담스러우시다면 00교구 본사 00사의 방장方丈 자리에 큰 스님을 모셨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시오! 방장인지 모기장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도대체 중 벼슬 몇 개쯤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요?"

"네에? 큰 스님, 너무하십니다. 큰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도 저도 다 싫다 팽개치시면 장차 이 나라 불교는 어쩌란 말입니까?"

"뭐요? 이 나라 불교!"

드디어 스님은 아예 표정관리를 포기하신 채 눈빛에 칼날을 얹어 확 쏘아보셨다. 아, 저 눈빛! 처사들은 더 이상 그 칼빛에 버티지 못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일어서서 하직인사를 드리려 자세를 취하자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렸다.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한국 불교는 여기까지 왔소! 또 누구한테 가서 장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따위 행동이 불자들이 할 짓이오?"

냉혹하게 한마디 찍어놓고 인사고 뭐고 당신이 먼저 방을 나가 버렸다.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듯한 언행이었다. 처사들은 얼굴이 납덩어리가 되어 이를 악물고 떠났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無緣衆生 濟度不能이라 했던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했듯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었다. 스님은 아직도 불편함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모두 다 들으라고 또 한 번 더 큰 소리로 일갈을 던졌다.

"저 처사들이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으리라 어찌 알고 왔겠소?"

"……"

"여기 계신 스님들이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못해 알려주었겠지만, 차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이 법련사도 발길을 끊겠소!"

분위기가 너무도 무거웠다. 여기 스님들이 불벼락 맞는 것도 민망한 일이고, 나와 스님과의 첫 만남도 생각이 나서 부득이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여기 스님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곁에서 지켜 본 제가 민망해서……."

"뭐요? 다 함께 들으라고 한 거요! 저 친구들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오! 내게 두 번 다시 중 벼슬 권하는 놈은 내 공부 훔쳐가는 마구니들이야!"

아 저 눈빛! 그것은 차라리 칼날이었다. 떠나간 처사들은 공부에 뜻을 두기보다 속리俗利에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그들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으로 굴려 숙제로 삼았으면 좋으련만, 당사자인 스님보다 이미 전과자인 내 마음이 더 무거워 스님과의 첫 인연을 잠시 회상해 보았다.

고현 •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牛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탱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주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의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해주었다.

비어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글 • 변택주

옛 어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알았다. 또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슬기롭게 잘 쓸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옛 것은 낡은 것이고 모자란다고 여기면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드나듦 길, '비움' '틈새' 쓰임새를 몰랐다. 그래서 남은 공간만 있으면 채우고 열린 곳이 있으면 그저 꽉꽉 틀어막았다.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슬기를 내동댕이쳤다. 자연과 더불어 나누고 드나드는 슬기를 까맣게 잊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를 느끼고 맛보려고 들지 않고 자연을 조이고 옥죄려고 들었다.

하지만 사람도 역시 자연인지라 그렇게 틀어막은 속에서 답답함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틈이 없는 빡빡한 삶은 견딜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마치 보도블록 새를 뚫고 돋아난 풀꽃처럼 틈을 내기 시작했다.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이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걸 새삼 절감하게 됐다. 너절하게 널브러진 것을 덜어내고 막힌 것을 뚫는 작업을 시작했다. 비우고 내려놓음 뺄셈 철학이다.

요즘엔 어느 종교나 비우고 내려놓음을 내세우지만, 비우고 덜어내는 일은 본디 절집 풍습이다. 들어내고 비우는 일이란 너절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치움이 비움이다. 비움은 내려놓음이다. 안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 내려놓음은 칼날 세움이다. 칼날 세움은 칼을 가는 일. 칼이 칼답게 제 노릇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날이 시퍼렇게 서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날선 칼을 오랜 타성과 번뇌를 가차 없이 끊어내는 반야검이라 부른다. 서슬 푸른 칼날을 지니지 않으면 남은커녕 제 자신도 구제할 길이 없다. 사람은 이렇게 서슬 시퍼런 칼로 끊어냄과 비워냄이 어우러져 한 켜 한 켜 쌓아갈 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살다간 마조 법을 이은, 방 거사는 본디 소문난 부호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온 재산을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 미련 없이 버린다. 온 재산을 바다에 버리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까도 생각해본다. 하지만 자신도 버리려는 짐스런 재산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실행하기로 마음먹는다. 그 뒤 조그만 오두막에 살면서 대조리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목숨을 이어가며 딸과 함께 평생 수도생활을 한다. 그가 남긴 게송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디 내 모습이 드러난다.

덜어내고 비워낸 끝에 얻은 고요, 적막함 그 안에 본디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그렇게 고요 속에서 꽉 채워진 텅 빈 충만 앞에 섰다. 고요적적, 그 빈 탕 안에 담긴 여여함이다.

법정 스님은 오래전부터 '텅 빈 충만'이란 표현으로 버리고 떠나는 무소유 사상을 펴셨다. 선택한 가난, 청빈이야말로 덜어내고 비워내는 뺄셈이 지닌 아름다움 극치다. 그 느낌을 잘 나타내는 풍경이 잎을 다 떨구고 몸만 남은 나무를 보는 겨울이다. 겨우 살아가기 때문에 겨울이라나.

적조함이 도는 겨울나무 숲은 본질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벗어난 길. 비움 길. 이 겨울, 여백미를 마음껏 느끼는 텅 빈 충만을 만끽해보자.

비어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비어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변택주 •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글 • 법 정(法 頂)

어쩌면 학창 시절로는 최후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여행에서 잘 다녀왔겠지. 너 그동안 무척 커 버렸더구나. 실례인 줄 알면서도 성남이를 통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보고 실로 눈물겨웠다. 내 학창 시절의 그것과 너무도 같았기 때문이다.

너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더니 막상 만나 보니 담담해지더군. 말은 없어도 마음과 마음끼린 다 통하는 바가 있어 모든 걸 잘 알 수 있었다. 나도 이번 길에 여러 가지로 자극받은 바가 많았다. 산으로 돌아가면 한층 분발해서 가족을 등지고 출가한 보람을 하루 속히 성취하기에 애쓰련다.

집에 있는 아희들에게도 한결같이 내 형제간으로 알고 친절히 하여라. 모두 인연이 아름다운 형제들이다. 어머니에게도 항상 마음 편히 해 드리고.

진학을 못한다고 비관은 말아라. 전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냐! 마음을 안정하고 착하게 살아 나가면 무슨 길이 트이는 법이니라. 너희들을 대할 때 나는 양심에 무한한 가

책을 받는다. 미약하나마 힘을 조금도 보탤 수 없는 무능한 나를 부끄러워 할 뿐이다.

성직아,

고난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생기고 또한 생활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체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할 말이 실로 많으나 한이 없겠기로 줄인다. 항상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여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안녕히
목포를 떠나기 전날 밤
정혜원에서 철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소유의 참의미

글 • 김옥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 무소유 –

무소유無所有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뜻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독한 가난, 궁핍함을 뜻한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천형'과도 같을 만큼 비참한 일이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컵라면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하고, 버스를 탈 때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무소유적인 삶은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 자체일 뿐이다.

하지만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의미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소유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를 좀 더 부연해

서 말한다면 가난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가난, 즉 '청빈한 삶'을 말하는 것으로 가진 자들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겠다.

물론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달콤한 마시멜로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이 쉽게 달콤함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지독한 고행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검소한 삶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삶이 아닐까 싶다.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헨리 소로우라고 불리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월든〉의 저자로 유명 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흔적이 남아 있는 '월든'을 찾아가는 등 깊은 관심을 가졌다. 소로우는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숫가 숲 속에 오두막을 짓고 최소한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무소유의 삶을 실천에 옮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법정스님은 소로우의 삶을 동경했으며 자신 또한 그처럼 실천에 옮김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의 명저로 많은 독자가 사랑한 〈무소유〉는 그의 청빈한 정신을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소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무소유와 맑고 향기로움을 배우다

글 • 홍정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5박 7일간(11월 18일부터 24일) 주지스님과 15명의 신도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미얀마 국민의 생활상을 엿보며 강렬하게 느꼈던 몇 가지를 글로 써 본다.

11월 18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저녁 6시 30분경 출발한 비행기는 약 6시간 30분의 비행 후 미얀마 양곤 (Yangon) 국제공항에 현지 시간 저녁 11시경(시차 2시간 30분)에 도착했다.

11월 19일, 성지 순례 일정상 가장 힘든 일정은 현지에서의 첫째 날인 듯하다. 양곤에서 아침 6시 국내선 비행기를 서둘러 타고 바간(Bagan)으로 이동해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바간의 불탑과 사찰을 참배하는 일정이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진다. 미얀마는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연방국으로 국민의 90%가 불교도이고, 11세기 중엽 바간(Bagan) 왕조의 아노라타(Anawrahta) 왕이 등극하면서 남방 불교를 받아들여 강력한 국가 종교로 발전시켰다. 미얀마 최초의 통일 국가였던 바간 왕조에 건립된 사원 수가 400만 개가 넘었다고 하며, 현재는 약 2,500여 개의 사원이 바

간 지역에 남아 있다고 한다.

현지 가이드가 미얀마에서는 모든 사찰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다녀야 한다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순례 기간동안 '미얀마 정장'을 할 것을 권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맨발과 슬리퍼를 신고 버스에서 내려 쉐지곤 파고다를 가는 길에 아침에만 잠깐 열리는 '냐우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오래된 목재와 천막들로 가린 협소한 곳에서 튀김, 과일, 야채 몇 묶음, 파리 때가 날아다니는 생닭과 생선을 나무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치고 있는 사람들과 부처님께 공양할 각종 꽃을 팔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나로서는 가난한 시절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던 추억이 떠올랐고, 미얀마인들의 순박한 생활상과 순수함을 엿 볼 수 있었다.

바간의 대표적 건축물 황금빛의 쉐지곤 파고다(Shwezigon pagoda)를 방문했다. 쉐지곤 파고다는 '황금 모래 언덕 위에 세워진 사원' 이라는 뜻으로 바간 왕조의 3대 걸작중 하나이며 미얀마 불탑의 원형으로 붓다의 사리(정골과 치아)를 모신 곳이다.

덕일 스님을 비롯한 우리 일행은 대탑을 중심으로 탑돌이를 하면서 그 네 면의 벽마다 계신 부처님에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 앞에 몸을 정갈히 하여, 미얀마에서의 첫 예불과 천수경, 반야심경, 축원과 더불어 덕일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20일, 이른 아침 일행은 바간에서 만달레이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고 현재 미얀마 제2의 도시로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다. 미얀마 최대 규모의 불교 교육기관인 마하간다용 수도원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1,000여명의 승려들이 교리를 익히고 승려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곳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 매우 혼잡했다. 이곳을 찾는 이유는 매일 오전 10시 전후로 진행되는 승려들의 공양하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다. 정갈하게 목욕을 한 뒤 탁발 공양을 위해 늘어서는 기다란 줄, 오후불식이라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수행자의 모습, 공양을 받은 음식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며, 보시를 주고받는 일의 경건함과 음식으로 인해 숨쉴 수 있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마하무니 파고다(Mahamuni pagoda)는 만달레이에서 가장 큰 파고다이며, 쉐다곤 파고다, 짜익티요 파고다와 함께 미얀마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3대 파고다 중의 하나다. 사원

에 들어서는 순간 엄청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이 눈길을 끄고, 사원 중앙에 위치한 마하무니 불상의 황금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높이 3.8M의 황금 불상으로 시민들이 부착한 금박의 무게가 12톤이 넘는다고 한다. 기부한 각종 보석들의 값어치만 4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 미얀마가 가난한 나라인지 황금의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남자들이 줄을 서서 불상위에 올라가 금박을 붙이고 소원을 빌고 있는데, 금박을 너무 많이 붙여서 불상은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듯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마하무니 파고다를 둘러본 후 해발 236m의 작은 산에 있는 만달레이 힐(Mandalay Hill)로 이동했다. 이곳은 부처님이 오백 나한을 이끌고 순례했던 곳으로 "내가 열반에 든 뒤 이곳은 불교 도시로서 발전할 것이며, 왕조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만달레이 힐에서는 만달레이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으며, 발아래로는 만달레이 왕궁이 보인다. 날이 맑으면 에야워디 강 건너편의 밍군(Mingun) 대탑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11월 21일, 우리 일행은 만달레이에서 인따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헤호(Heho)라는 도시로 이동하였다. 헤호는 미얀마 행정구역 중 제일 크며 전 국토의 1/4정도가 되는 도시이지만, 해발 1,3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아름다운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문명과 거리가 먼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찾는 인레 호수를 가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다. 호수에서 태어나 호수에서 생을 마감하는 미얀마 소수민족들과 그들의 터전인 인레 호수는 미얀마 순례 중 색다른 추억이 되었다.

11월 22일, 헤호에서 숙박한 호텔은 호수를 가운데 끼고 방갈로 형태의 객실이 둘러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가 호수를 붉게 물들이자 호텔 주변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동안의 피곤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아침 일정으로 헤호 근처 사찰의 주지 스님과 공부하는 학승들 서른 분을 모시고 아침공양을 대접하는 행사가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미얀마 스님들이 미리 마련된 단 위에 좌정을 하고, 우리 일행들은 삼배를 올리고 그 앞에 앉았다. 미얀마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시고 함께 사진 촬영도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11월 23일, 아침 공양을 한 후 우리 일행은 까비에 파고다(kaba Aye Pagoda)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였다. 까비에(kaba Aye)란 세계평화라는 뜻으로 1953년 제6차 불교집결이 이루어진 후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에서 부처님사리, 사리불존자사리, 목련존자사리를 모시고 건립된 사원으로, 원형 벽면에는 각국에서 모셔온 불상들이 나라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미얀마 종교성직원의 안내에 따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2명씩 짝을 지어 무릎을 꿇고 합장하자 머리 위에 진신사리를 살짝 올려 주는 의식을 거행해 주었다. 많은 부처님 사리 중에 가장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리를 모신 곳이기에 마치 부처님을 뵙는 것 같은 환희심이 난다. 우리 일행은 길상사 덕일 주지스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원만회향하게 됨을 감사하며, 까비에 파고다에서 회향기도를 봉행하였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을 무렵 우리 일행은 순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로 이동했다. 쉐다곤 이름의 쉐는 황금, 다곤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높이 112.17m의 크고 아름다운 황금 탑! 전체가 황금으로 도금되어 상륜부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눈부시게 빛난다. 미얀마의 왕들이 자신의 몸무게만큼 금을 보시하고 불자들 역시 금과 보석 등을 보시한 결과 쉐다곤 파고다는 오늘날과 같은 화려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탑은 미얀마 불교가 부처님 재세기 시작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거대한 황금 탑이니만

큼 해가 질 때 빛을 받을 때나 저녁 야경도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쉐다곤 파고다는 양곤에 가면 반드시 가보아야 하는 미얀마 역사와 불교문화의 성지이자 미얀마의 상징이며 불교도들의 정신적 지주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한 지역과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이번 길상사 미얀마 성지순례를 통해 받은 감명은 파고다를 관리하는 사람이 출가한 스님들이 아니라, 모두 재가의 마을 성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보수하거나 입장료, 불전함, 공양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파고다 여기저기에는 불전함이 여러 개 있는데, 시주자들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전함 앞에 각각 이 돈이 사용되는 곳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학교, 고아원, 양로원, 복지단체 등의 이름이라고 한다.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시주를 올리면서 내가 낸 돈이 부처님에게도 오르면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사회의 어려운 곳으로 바로 환원되는 구조로서 시주자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였다.

11월 24일 새벽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얀마인들 모두가 부처님을 예경하면서 맑은 가난을 실천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공경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하심하고 낮추어야 하듯이 이번 미얀마 여행은 나를 한없이 낮추고 겸허하게 만들어 주었다. 언젠가 내 스스로 욕심을 내거나 헛된 망상을 가지게 된다면 '많고, 높고, 크지만 청빈한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의 파고다에서 '무소유와 맑고 향기롭게' 화두를 다시 새기고 오고 싶다. 우리 모두 밍글라바~ (행복하세요)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 로그인 〉 참여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도 후원 내역,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총무팀 02.741-4696)

➜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원자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비용 절약으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길상사 창건 22주년 기념법회 원만 회향

지난 12월 15일(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2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되어 헌다, 헌화, 길상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덕일 주지 스님의 창건 법문, 길상사 신도 및 (사)맑고 향기롭게 모범회원&봉사자 감사패 시상, 길상사 재무보고 등의 순서로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법정 어른스님께서 생전 길상사를 창건하신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길상화 보살님의 무주상 보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신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법문 후에는 길상사에서 모범적인 신행생활과 사중의 크고 작은 일에 성의로써 참석하신 신도에게 드리는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가 있었고, 이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활동에서 각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해주신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시상으로 KTX나눔이회와 SJ 파워 사랑 봉사단에게 감사패를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 생전 인연이 깊었던 샘터 출판사와 문화 사업을 교류 협력하는 〈협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에는 길상사 신도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길상사의 창건 22주년을 축하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주)샘터 출판사 문화 교류 협약서(MOU) 체결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및 샘터 600호 증간호 〈스스로 행복하라〉 발간 및 인세 전액 기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안을 주던 월간 〈샘터〉가 경영악화로 인해 창간 49년 만에 통권 598호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샘터'에는 작가 피천득, 최인호, 정채봉,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이 글을 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일반 시민의 글이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각종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종이잡지가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11월 초 다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지에서 샘터의 휴간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독자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몇 군데 기업이 후원 의사를 밝혀옴으로, 잡지 발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샘터의 노력에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도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이유는 월간 〈샘터〉가 법정 스님과 인연이 깊은 출판사이기도 하며, 샘터의 회사 이념과 지향 방향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비슷하기에 양 기관 간에 문화 사업을 교류하여 WINWIN 하기 위함입니다.

샘터는 1970년 창간한 뒤부터 30년 넘게 법정 스님의 글을 연재했고, 그 글들을 묶어 단행본을 냈습니다. 법정 스님이 샘터를 통해 출간한 도서는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텅 빈 충만,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홀로 사는 즐거움, 말과 침묵,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인도기행, 대화(공저)"가 대표적이며, 법정 스님은 인세를 받아 매년 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남몰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길상화(吉祥華) 보살도 샘터에 글을 쓰셨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공감하여, 7,000여 평의 대원각 건물터를 스님에게 시주하고자 하였으며, 스님은 10년간 시주를 거절하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시면서, 근본도량의 필요성을 느끼며 〈길상사〉가 탄생하게 되는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사)맑고 향기롭게와 (주)샘터 출판사는 인간 본래의 심성을 맑히고, 인간미와 전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불교시민운동과 독서문화운동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행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문화사업,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 독서문화와 문인 관련 문화사업,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협력 교류하여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활동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지난 12월 15일 길상사 창건 22주년 기념법회에서 여러 불자와 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교환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앞으로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사진 공모전' 등의 문화 행사를 샘터와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에 맞춰 스님의 여러 산문 중 "행복, 자연, 책, 나눔"이란 주제의 글을 가려 뽑아,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및 샘터 50주년 지령 600호 기념 증간호로 〈스스로 행복하라〉를 출간하여, 샘터 독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사상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스로 행복하라〉 인세 수익은 월간 〈샘터〉의 지속적인 발간에 도움이 되고자 전액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법회일(2020년 2월 19일, 음력 1월 26일)에 참석하는 참배객에게 〈스스로 행복하라〉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연말 김장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1월 28일(목)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을 비롯하여 KTX나눔이회 등 봉사자 120여 명

이 동참하여 3,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11월 29일(금)에 23개 주민센터를 통해 465가구에 김장 15kg씩 개별 포장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인 혜광맹인불자회, 성북동 노인정, 마가렛 방과후교실에도 총 300kg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김장을 할 때마다 항상 날씨로 걱정이 많았지만 올해는 다행히 미세먼지도 멎고, 바람이 불지 않는 포근한 날씨 덕분에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참여하신 봉사자분들과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절임배추와 양념장 하역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김장 나눔에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신 분, 먹거리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중앙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 받습니다

본 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따라 본회 목적과 뜻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순수하게 동참할 수 있는 회원으로, 2020년 3월 대의원총회 개회일부터 2022년 초 대의원총회 전일까지 활동할 임기제 대의원을 추천 및 지원받습니다.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신 분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행과 NGO활동, 사회복지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추천 및 지원 자격은 중앙모임 가입일로부터 만 3개월 이상이 지났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 전자 우편, 우편, 팩스, 방문
- **추천 및 지원기간** : 2020년 1월 20일까지

맑고 향기롭게 2020년도 달력 발송 안내

중앙모임에서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1월 13일 발송해드렸으며, 11월에서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0년 1월 중순에 탁상달력을 배송해드립니다. 이에 본 모임에 후원을 하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 수신거부하신 회원님이나, 주소 이전이나 우편배달이 되지 않아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지혜롭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에서 제작하여 지난 창건 기념 법회(12월 15일(일))일 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달력은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봉사자팀별 송년모임 진행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별로 송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활동을 마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마음을 내어주시고, 공감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한해도 맑고 향기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사무국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행 단체회와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쓱쓱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금)/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11월~2월은 김장 나눔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 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1일	오후 9시 ~ 새벽 4시	극락전
성도재일	1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11일	오후 8시	극락전
지장재일	1월 1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구정) 합동차례	1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 · 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설(구정) 합동차례
- 일시 : 1월 25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접수번호 1~600)
  설법전 (접수번호 601부터)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2월 2일(일) 오전 9시 50분
  ~ 2월 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